

중국 개혁개방 30년과 북한

전 병 곤

국제관계연구실 연구위원

중국이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중국의 역사적 전환점이자 개혁개방의 기점으로 평가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지 꼭 30년이 되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계급투쟁을 중시하는 기존의 관점을 폐기하고, 낙후한 사회생산력과 인민의 물질문화에 대한 요구간의 모순이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점진적이면서 단계적인 대내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한 광범위한 이론적 수렴도 진행했다. 사회주의에 자본주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사회주의초급단계론’, 계획경제에 시장경제를 접목한 ‘계획적상품경제론’·‘사회주의시장경제론’ 등을 잇달아 창출하고 이를 ‘중국식 사회주의’로 명명했다. 대내개혁도 농촌(업)에서 출발 도시상공업 분야로, 대외개방도 점·선·면의 단계적 연해개방에서 전방위 개혁개방으로 확대했다.

정치개혁도 단행했다. 마오쩌둥(毛澤東) 1인 지배체제의 폐단을 경험한 중국공산당은 국가지도자급 직위의 3선 금지 조항을 「82헌법」에 명문화하였고,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이나 하위부서로 이양하는 분권화 개혁도 추진했다. 당 지배체제의 안정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와 당내 민주화도 조심스럽게 확대해 왔다. 또한 경제발전이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제와 이념의 경쟁대상이었던 미국과 수교(1979)를 단행한 중국은 실리에 입각한 전방위 외교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강화해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출현한 개혁개방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30년 동안 진행된 사유화·시장화·분권화·다원화의 변화는 사회주의가 무색할 정도의 지역격차와 빈부격차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안정과 국민통합 문제가 통제력이 약화된 중국공산당의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추진하는 한편, 개혁에 수반되는 변화를 안정적으로 수용해 왔다. 여기에는 덩샤오핑(鄧小平)은 물론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로 이어지는 중국지도부의 개혁적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0년간에 걸친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2001년 상하이를 방문한 김정일의 표현대로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의미의 상전벽해(桑田碧海) 그 자체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30년간 연평균 9.8%의 고도성장을 유지하며, 국내총생산(GDP) 58배, 1인당 GDP 42배 이상, 무역액 105배, 외환보유액 1천배 이상 성장하였고, 2007년 미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른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도 향상되었다. 2008년 8월에 숙원이었던 올림픽도 개최하였고 한국·일본·인도와의 전략적 관계수립, 아세안과의 FTA 체결, 상하이협력기구(SCO)와 6자회담을 운용하면서 주변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년간의 중국의 경험은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가 중국의 정치경제적 강대국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를 더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30년의 경험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다. 특히,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국으로서 전통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주는 함의는 주목된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핵 개발을 통한 체제유지에만 급급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금강산·개성관광 중단 및 개성공단의 축소, 6자회담의 결렬 등에서 나타난 북한의 행보를 보면서,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은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 북한은 국가 규모, 산업구조, 시장성, 지리적 입지 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경험을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 지배체제와 사회주의 이념을 유지한 채 자본주의를 ‘중국적’으로 수용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의 경험은 북한이 ‘성공적’인 길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정세에 맞는 개혁이념의 창출, 테크노크라트를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의 등장 및 기획양성,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주변 환경의 개선, 화교자본의 활용, 개혁개방만이 살길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굳은 믿음과 의지 등 개혁 초기 중국의 경험은 북한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